

#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 10월의 환희

2007년 10월 4일. 온 삼천리강도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이날 행성을 진감시키며 평양에서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발표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인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토양우에서 꽃피운 선언이며 이 선언의 채택은 6.15공동선언과 함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거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특기할만 한 사변이다.

6.15시대를 개척하고 빛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의 요구를 명철하게 헤아리시고 평양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하시었으며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와 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하기에 이날을 맞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다.

지금도 5년전의 그날을 되새겨 보노라면 북남삼천리를 뜨거운 통일열기로 한껏 달구었던 잊지 못할 환희의 장면들이 가슴뿌듯하게 안겨온다.

주제96(2007)년 10월 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4.25문화회관 광장에 나오시어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의 로무현대통령과 그 일행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주셨다. 그이께서는 남측대통령과의 회담기간 6.15선언자들에게 대해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북남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친척관계》라는 뜻깊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로 전진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엔 모든 문제를 민족적인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하시며 7천만 겨레에게 안겨줄 큼직한 선언의 표제도 《북남관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제96(2007)년 10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6.15시대와 더불어 역사적인 10.4선언이 탄생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동포애의 빛나는 결실이다.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세월의 년륜을 덧쌓으며 분열의 뼈아픈 비극을 당하는 겨레의 아픔을 생각하시는 장군님의 열화같은 민족애, 동포애는 조국통일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드림없는 의지로 굳어졌다.

나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랐다. 수평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

바로 민족의 통일을 념원하시는 장군님의 민족애, 동포애는 이처럼 강렬한 것이었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딱차있었다.

주제84(1995)년 7월 어느 날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날 평양에 온 문익환목사의 미망인인 박용길동포를 만나시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달도록 해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격식과 틀에 구애됨이 없이 남측대통령과 그 일행을 극진하게 돌봐주시는데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감동할 금치 못하였다.

부산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에서서는 젊은이로부터 늙은이,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현일 《환영문화제》를 벌려놓고 춤과 노래로 흥성거렸으며 평양상봉장면이 대형TV로 나올 때마다 환성을 울리면서 기쁨을 터치었다.

대학생들도 《금방 통일이 될것 같다》, 《통일조국으로 가는 길,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은 온 겨레의 만남》이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들에서 통일분위기를 돋구며 성대한 환영행사를 진행하였다.

실로 북남삼천리를 통일의 환희로 또다시 들끓게 한 역사적인 10.4선언의 채택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겨레에

게 거기에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애국 의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결정체였다.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조국통일시대가 열렸다고 하여 조국통일운동이 순탄하게 발전하여 온것은 결코 아니었다.

날로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은 미국은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였으며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결정책까지 들고나왔다.

또한 《6.15식 통일은 없애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무효이며 리행할 무리가 없

다.》고 하면서 온 겨레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날로 악화시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단호히 짓눌러버리시며 이 땅의 평화와 전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었다.

북남관계가 악화의 길을 걷고있던 그때에도 너그러운 아량과 도량으로 평양을 방문하고있던 남조선의 현대그룹 회장일행을 집견해주시고 그들이 제기한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으며 그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특사조의방문단까지 서울에 파견해주시었다.

실로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부귀영화를 실현하며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김정은원수님의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신 그이의 애국의 말씀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정당, 단체, 주의주장파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을 통일성업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여전히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려놓고있으며 꺼져가는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단말마적 발악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8.25경축연회현설에서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으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진으로 대항할것이라는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이것은 김정은원수님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내닫는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칠추이며 징벌의 선언이다.

아버지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드시 이 땅에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은 략관적이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칠 통일강국은 머지않아 유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송고한 민족애

였다.

소북단장을 한 백발의 박용길목사를 만나시고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인사말을 전하신 장군님께서 나는 너사 혼자 온것 아니라 문익환선생과 함께 왔으며 두분이 수령님께 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인사를 안고온것으로 생각되고있다 쓰껍제 말씀하시었다.

먼저 세상을 하직한 남편도 평양으로 함께 간다는 생각에서 고인의 유물을 소중히 안고오는 남모르는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장군님의 사려깊은 동포애에 박용길동포는 남편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생각,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 바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민족의 해님을 보았다는 환희로 가슴들먹이였다.

그는 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대단결의 구심이시며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통일위업실현의 주체는 해내외 온 민족이고 민족성원들이 하나로 굳게 단합한것은 그것이 통일이라는것이 장군님의 민족애이고 의지였기에 그이께서는 6.15시대의

벽찬 그 나날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한 문명자제미동포를 만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해외에서 문명활동가로 적극 활약하고있는데 대해 잘 알고있다고 하시며 그의 애국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었다.

화기에애한 오찬도 마련하시어 조국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통일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통일 실현을 위한 방도적문제들일수록 연하게 말씀하신 장군님이시이다. 그의 열렬한 민족애와 후더운 인정미, 따뜻한 동포애에 감복한 그는 남측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강하면서도 소탈한분이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자기의 진정을 글에 담았다.

6.15시대가 격류마냥 흐르는 속에는 온 겨레가 10.4선언 리행을 위해 힘을 합쳐주시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

주제98(2009)년 8월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온 남

북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평화를 교란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의세와 민족분열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정의와 존엄의 불로 다스리는것은 곧 평화이고 통일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파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남이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분, 겨레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는 민족애와 동포애의 거룩한 체현자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라는것이 겨레의 신심이며 락관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겨레에게 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선언들이 채택발표되게 하신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장거다. 그분께서 오래 계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꽃피우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애국애에 북남동포들과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남남동포들의 절절한 애도와 비분의 토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심이다.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공동선언에 이어 10.4선언이 채택발표된 그 나날에 그이에 대한 온 겨레의 신뢰성과 존경심은 더욱 높아졌다.

당시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의 채택을 열렬히

10월 4일 그날은 리철준

아, 한평생 해와 달을 이어 우리 장군님 이 땅에 6.15를 마련해주시고 또다시 수백수천년을 바쳐 친히 안아오신 10월 4일이여

저처럼 소원하던 통일 그 선언문 조항처럼 실려 매일이라도 당장 올것만 같아 구절구절 읽어 가슴 들먹이던 북녘 눈시울 적시던 남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그 송고한 뜻 새기고 새기며 누구나 벽차게 그려보던 민족변영의 매일이여 통일조선의 매일이여

그 매일엔 있지 않느냐 우리 민족끼리 손 잡고 펼쳐놓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남어공들이 만났기를 날리며 푸른 물결우에 터치는 웃음이

그 매일엔 있었어라 남녘겨레가 백두산을 오고가는 직항로의 비행기들을 서해선을 더욱 힘차게 달리는 렬차 통일로 나가는 겨레의 발걸음소리

아, 한평생 해와 달을 이어 우리 장군님 이 땅에 6.15를 마련해주시고 또다시 수백수천년을 바쳐 친히 안아오신 10월 4일이여

쇠물이 사들인 용광로처럼 삼천리가 끓어번지던 그날은 우리 장군님 불같은 민족애 사상과 신앙 따로 없이 온 겨레가 마음짚던 감격의 날

매일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7천만이 환호를 터쳐올린 그날은 겨레의 가슴에서 분열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조국이 일떠서던 환희의 날

정녕 그날이 10월 4일 그날이 새로운 날과 달을 열며 북남삼천리에 5년세월 장쾌하게 흐르고 흘렀다면 6.15통일세상은 활짝 꽃피웠으려나

겨레여 우리 령도의 그날에 살자 통일을 그려 불타던 심장으로 10.4선언을 끝까지 지키고 받들자 오, 10월 4일 그날을 오, 통일의 날로 펼쳐자!

2박 3일간의 추억

석차가 따로 없이 평양의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있는 일이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측 수뇌분과 악수를 나누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신데 이어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남측공식수행인들과 인사를 나누시려고 그들앞으로 다가오시었다. 나란히 선 그들도 흥분을 이기지 못해하며 발발발발 가까이 다가서고있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수뇌상봉 특별수행인들 속에는 남조선평업계의 한 기업가가 있었다.

백낸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정작 북녘땅을 밟아보니 현실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터놓았다. 나는 이번에 평양에 왔다가 새로운 세가지들 안고간다. 첫째는 우리 남측

대표단을 위해 연도에 펼쳐나와 열렬히 환영해준 북녘인민들께서 받은 동포애의 따뜻함이다. 둘째는 수뇌상봉준비로부러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남측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들이 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대범한 용단과 너그러움이다. 셋째는 지금까지 너무 몰랐던 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나는 북에서 안고가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북남경제협력에 앞장서겠다.

질은 밤향기

남측수뇌분일행을 위해 마련된 환영연회상에는 여러가지 음식들과 함께 구운 성전약밥이 올라다. 고소하고 달디단 맛을 내는 약밥은 참석자들의 구미를 돋구었다. 약밥을 들던 수행원이 구운 밤을 까느라니 유년시절 생각이 난다고, 밤을 가지고가서 친지와 같이 먹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

평은 선언을 자자구구 음미 하고나서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전문가, 학자,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각계 인민들은 선언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전략적결단에 의해 이와 같은 민족사적리정표가 나올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평양상봉의 그날 장군님과 첫 회담을 한 남측수뇌분은 그이의 인품에 대해 《진실하고 솔직함분.》(대화하

기 편하신분》이라고 자기 심중을 터놓았다. 남조선 언론들은 일제히 평양수뇌상봉에 대해 특별뉴스로 보도했고 서울,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김정일승배열풍, 통일열기가 끓어쳤다.

력사적사건의 그 나날 세계 광범한 언론들도 평양상봉과 10.4선언채택을 대서특필하면서 장군님의 위인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실천 강령으로 되는 10.4선언이 채택발표된 다섯줄을 맞게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통일에국위일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 않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유훈대로 통일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 열망과 의지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자

##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역사적인 10.4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이 되어온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10월 4일은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놓은 6월 15일과 더불어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아로새긴 의의깊은 날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갈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 《대통령》 일행을 따듯이 맞아주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기간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 발표되었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개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대한 더 큰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6.15의 정신을 구현하여 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 갈수 있게 되었으며 6.15시대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0.4선언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 위업, 조국통일위업은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에 부딪히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그들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는 한편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애국적단체와 인사들을 《친북좌파》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또한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그들에게 송두리채 섬겨버치고 미국과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온 민족은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호투쟁에 떨쳐나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중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참된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지나온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갈 때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은 거이이 이룩될것이다.

5년전에 채택발표된 역사적인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개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번영과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은 10.4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그 리행을 가로막아왔다. 리명박보수패당은 《10.4선언은 부도날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이라고

##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차게 고무하는 삶과 투쟁의 지침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과 국토의 량단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분열의 비극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

하는데 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몸을 내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민족성원 각자의 삶과 운명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속에 매 개인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것은 목질많은 우리 민족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애국투쟁은 시련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들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의 민족분열책동과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인 사대매국책동에 의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애국의 열망을 안고 조국통일의 길을 거이이 열어나가는 우리 겨레의 지향을 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숙원을 이루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고있다. 온 민족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리행하여야 한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6.15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갈것을 명시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10.4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정신을 반영하고있다. 여기에는 민족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을 받을수 없이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 사상과 함께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깃들여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강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외세를 배격하며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이처럼 10.4선언은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가장 올바른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통일운동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개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이것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나갈것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방도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로 가는데서 북남공동선언들이 밝힌 길외에 다른 길은 없다. 북남관계가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고있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성과적리행을 떠나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정세가 달라지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북남공동선언들은 철저히 리행되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부정은 곧 북과 남의 화합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것이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불순한 행동이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며 그를 리행해나가려는것은 겨레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리행하기 위한 전민족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리련속

본사기자

##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적단합의 리념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대하고 그 정신으로 풀어나가는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요구이다. 온 겨레는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

여주었듯이 10.4선언에 밝혀진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창설되었다면 북과 남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없었을것이다. 지나온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매국배적책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굳게 련대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 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

적단합의 리념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대하고 그 정신으로 풀어나가는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요구이다. 온 겨레는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

여주었듯이 10.4선언에 밝혀진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창설되었다면 북과 남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사태도 없었을것이다. 지나온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매국배적책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굳게 련대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 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

## 10.4선언과 우리 민족의 과제





# 참 전 개 리 에 손 색 인 게 쥘 리 진 해 맞 이 식 당

## 은정 남히는 인민사랑의 창조물

인민의 호화거리로 훌륭하게 일떠선 창전거리 한복판에 독특한 모양새를 펼쳐며 새로 꾸러진 해맞이식당이 봉사를 시작하였다.

해맞이식당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창조물이다.

해맞이식당은 식탁과 의자, 매대 어디나 할것없이 위생성과 문화성이 잘 보장되어있는 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선정해주신 간판을 건 식

당의 원형나들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홀을 중심으로 슈퍼마켓과 대중식사실, 간이매대가 구색에 맞게 배치되어있다. 회전식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개별식사실들과 커피점에서 빵과 커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들을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운다.

그뿐이 아니다. 식당건물의 옥상에는 지붕전면에 파란 잔디를 입힌 특이한 록지가 펼쳐져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환경에서 느끼는 풍치도 부감하게 하고 휴식과 안정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건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본사기자 홍범식



## 독특하면서도 정교한 슈퍼마켓

해맞이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리는 곳은 1층에 위치한 슈퍼마켓이다.

파일과 남새, 우유 및 고기제품, 주류를 판매하는 이곳 식당의 슈퍼마켓은 면적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꾸밈새와 갖춤새가 독특하면서도 정교하게 꾸러져 있다.

연미색의 타일들을 바닥과 천정, 벽체들에 정교하게 붙여 산뜻한 감을 자아내는 슈퍼마켓은 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써붙인 상품소개판이며 바구니형식의 조화로운 무리등, 은근한 조명 등으로 균형이 잘 잡히게 꾸러져있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슈퍼마켓에서 인상깊



게 안겨오는것은 깨끗하면서도 특색있는 상품진렬이다.

손님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품들을 랭동설비가 갖추어진 진렬장들에 맷시있게 포장하여 올려놓기도 하고 파일류들을 큼직한 나무통안에 종류별로 구획지어 펼쳐놓았는가 하면 고기나 물고기류같은것은 부위별로 포장하여 진렬하기도 하고 통닭, 통오리등을 쿨동기안에 무드기 쌓아놓아 보기에 더욱 좋다.

슈퍼마켓의 정교회판매인의 말에 의하면 랭동설비들이 그꼴히 갖추어져있어 각종 육류와 물고기들의 선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다고 한다.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

본사기자

## 세계의 명료리들도 손색없이 봉사

해맞이식당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봉사하는 여러 식사실들과 커피점이 있다.

2층의 식당에 들어서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들을 전문봉사하는 개별식사실들이 꾸러져있다. 개별식사실들은 1층홀에서 승강기를 타고 오를수도 있고 독특한 건축미를 살린 라선형계단을 따라 올라갈수도 있다. 매 식사실들은 해당 나라의 특성에 맞게 잘 꾸러져있어 호실만 보아도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맛이 저절로 안겨와 군침이 술술 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만드는 솜씨 또한 팬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에서 왔다는 한춘실(45살)녀성은 《이곳 슈퍼마켓에는 손님들의 각이한 기호와 구미에 맞는 다종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그 질이 대단히 높다. 우유제품 한가지만 놓고

보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는 품질좋은 치즈와 바다 등 수습가지나 된다.》며 상품들을 살 때마다 이곳에 온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슈퍼마켓은 전자식료품결재, 빈틈없는 상품보장대책을 비롯하여 편리한 봉사환경을 이루고있어 손님들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본사기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봉사하는 여러 식사실들과 커피점이 있다.

2층의 식당에 들어서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리들을 전문봉사하는 개별식사실들이 꾸러져있다. 개별식사실들은 1층홀에서 승강기를 타고 오를수도 있고 독특한 건축미를 살린 라선형계단을 따라 올라갈수도 있다. 매 식사실들은 해당 나라의 특성에 맞게 잘 꾸러져있어 호실만 보아도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맛이 저절로 안겨와 군침이 술술 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만드는 솜씨 또한 팬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에서 왔다는 한춘실(45살)녀성은 《이곳 슈퍼마켓에는 손님들의 각이한 기호와 구미에 맞는 다종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그 질이 대단히 높다. 우유제품 한가지만 놓고

보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는 품질좋은 치즈와 바다 등 수습가지나 된다.》며 상품들을 살 때마다 이곳에 온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슈퍼마켓은 전자식료품결재, 빈틈없는 상품보장대책을 비롯하여 편리한 봉사환경을 이루고있어 손님들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본사기자

《식당맛은 음식맛이라고 했다. 이 식당에서는 유럽의 이름난 요리들을 거의 맛볼수 있는데 그 맛이 아주 좋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곳에 온다.》

평양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속에는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평양에 가서 창전거리의 해맞이식당을 갔었느냐는 말이 돌 정도로 외국인들속에 식당이 유명해졌다.

이 식당의 요리사들은 외국요리들을 전문으로 하고 급료리사들이다. 영입한지 얼마 안되는 이 식당에는 세

계요리들을 맛보려는 국내외 사람들도 많이 온다. 공화국 창건기념일인 지난 9월 9일에는 식당의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로 차고넘쳤다고 이곳 상업부인 최영희 녀성은 말하였다.

식당의 1층에는 청량음료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는 대중식사실도 있다. 소고기비빔밥과 칠판탕고기비빔밥, 칠판탕고기비빔밥, 남방짜면, 메밀냉면 등의 요리들이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지나가다 간편하게 식사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어린이용 아동식탁도 갖추어져있어 젓먹이애기나 탁아소 또래의 어린이들 데리고 오는 가정부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갓가지 빵들과 커피를 전문봉사하는 커피점도 해맞이식당의 품위를 한껏 돋구어준다. 구수한

빵냄새가 코를 찌르는 빵매대에 들어서면 맛 좋고 품질 높은 여러가지 빵들과 축빵들이 보기 좋게 진렬되어있어 사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먹음직스럽다.

요리사들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 직접 만들어주고 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생일축빵들을 주문받아 봉사하는것도 이 식당에서 볼수 있는 특색이다.

커피점에 들어서면 마치 집안에 들어선듯 안온한 감을 느끼게 한다. 최영희상업부인

개하였다.

커피점의 특성에 맞게 안온하게 잘 꾸러졌다고 치하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친근한 어머니의 애민헌신의 자욱이 깃든 사연같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들며 사람들은 가슴후두룩을 금치 못해한다. 해맞이식당에서는 앞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경영전략을 짜고들어 손님들이 즐겨찾는 식당으로 만들 커다란 포부를 안고 계속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등어들을 보았다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시주제사상연구소원 카지 모함마드 나즈물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통라곰등어관이 참으로 훌륭하게 꾸러졌다.

방대한 길이의 수송관으로 바다물을 끌어들이 곰등어들을 키운다니 놀라기만 하였다.

이곳에서 절세위인들의 이념위전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였다.

조선인민에게 더 큰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제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유전학적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리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의로봉사는 가장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로인과 부양자들이 늘어나며 집안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의로봉사에 대한 요구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사람들은 공화국의 의사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고마운 인민적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활력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제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유전학적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리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의로봉사는 가장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로인과 부양자들이 늘어나며 집안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의로봉사에 대한 요구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사람들은 공화국의 의사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고마운 인민적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활력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 수기 통일 의 그 날까지

나의 눈앞에는 지금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전승절경축행사에 전제로병대표로 참가했던 날이 어제처럼 삼삼히 떠오른다.

조국의 수난한 제일결심 황해남도 강령명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평양으로 향할 때는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지금으로부터 59년전 전승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던 때의 심정 그대로였다. 나는 23살에 서울에서 의용군에 입대하여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 당시 나는 전라도의 산골에서 재벌한 통나무를 팔러 와서 신촌에 갔다가 그곳에서 남진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을 맞았다. 꿈에도 바라던 공화국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외세에 의해 짓밟힌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 나는 주저없이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그리고는 남으로 남으로 원수들을 짓부시며 나갔다. 나는 전승승리를 1211고

지부군에서 맞았다. 전승의 축복이 오르고 전승광장 주성단에 오르며 연설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잊을수가 없다.

력사의 그날의 수령님모습이 모서진 대표증을 받아안고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였으니 나의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다. 정국행사기간 우리 전승로병들은 온갖 특전과 특례를 다 받아안았다. 훌륭한 조건이 갖추어진 숙소에서 불편없이 생활하였으며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매일이달리 숙소에 찾아와 생활을 구성구석 돌봐주었다.

7월 30일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루다. 이날 우리 전승로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장내가 떠나갈듯 한 만세의 황호성에 손을 높이 들어 담배처럼 활영장으로 들어서시는 김정원수님의 모습은 꼭 어버이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는 수령님을 다시금 뵈는것만 같아 눈물속에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리명박과 같은 미친놈에게는 오직 선군의 총대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제날의 전승로병으로서 남조선의 혈육들을 일제안을 통일의 그날까지 마음속의 총대맛을 놓지 않을것이며 만일 통일대전이 일어난다면 늘은 이물거끼어 바쳐싸울 결심이다.

황해남도 강령군을 리명수

통라곰등어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향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을 체현하신 그의 령도력과 품도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인민들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곰등어들을 보며 즐거움의 환배를 보내고있다.

가키스틴지력강연구협회 서기장 자베드 아흐메드 안 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곰등어관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국가가 꾸러준 휴식리원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을 락친적으로 하고있다.

제일 행복한 인민의 모습을 보았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련회 성원 쵸 아마르 바야스갈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악선물에 맞추어 곰등어들이 물문수에 뛰어들기

통라곰등어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향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을 체현하신 그의 령도력과 품도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인민들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곰등어들을 보며 즐거움의 환배를 보내고있다.

가키스틴지력강연구협회 서기장 자베드 아흐메드 안 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곰등어관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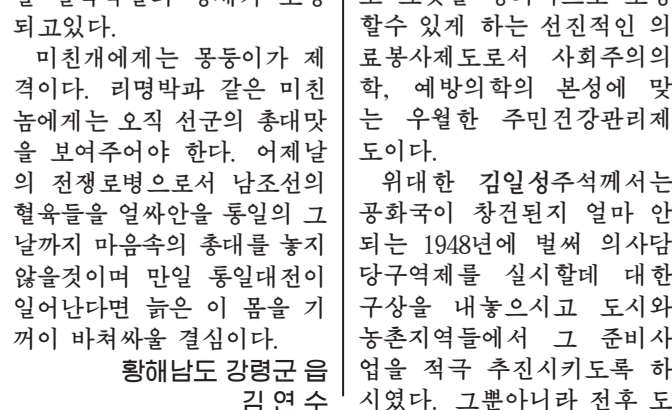
조선인민은 국가가 꾸러준 휴식리원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을 락친적으로 하고있다.

제일 행복한 인민의 모습을 보았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련회 성원 쵸 아마르 바야스갈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악선물에 맞추어 곰등어들이 물문수에 뛰어들기



## 누구에게나 담당의사가 있다

시에서부터 의사당구역제를 완성하고 농촌에서 점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단위에 진료소를 벌이고 거기에 의사들을 많이 배치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기 전인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의사당구역제가 빛나게 실시되었다. 이것은 공화국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지에 대한 뚜렷한 중시로 된다.

그후 중앙에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가진 어린이의 로봉사망, 녀성의로봉사망, 고려의로봉사망, 구강의로봉사망 등 여러가지 전문과과 직무를 내놓고 도시와 농촌지역들에서 그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전후 도

제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유전학적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리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의로봉사는 가장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로인과 부양자들이 늘어나며 집안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의로봉사에 대한 요구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사람들은 공화국의 의사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고마운 인민적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활력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제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유전학적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리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의로봉사는 가장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로인과 부양자들이 늘어나며 집안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의로봉사에 대한 요구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사람들은 공화국의 의사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고마운 인민적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활력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제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유전학적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리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의로봉사는 가장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로인과 부양자들이 늘어나며 집안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의로봉사에 대한 요구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사람들은 공화국의 의사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고마운 인민적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활력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